



**황영기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전북지부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23일,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 정책 현황을 방문했다. 이번 정책 현장 방문은 전북지부 업무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직원 및 자원봉사자 격려와 애로사항 청취, 청사 및 기술교육원 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황영기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보호대상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아름다운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힘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황경주 지부장은 "전북지부를 방문해 주신 황영기 이사장님께 감사사를 표하며, 사회 복귀 및 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O만호 기자



**정읍시, 마음건강 주치의로 정신건강 케어 강화**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건강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음건강주치의' 사업은 정신건강 또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어려워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정신건강관련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이라면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상담 일정을 조율한 후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대상자들은 조현병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자살사도자 및 자살 유족, 알코올 및 마약 등의 물질 중독,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 등이다. '마음건강주치의' 상담에 참여한 한 시민은 "전문가의 선별과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군, 한마음 치매 극복 건강 걷기대회 개최**

무주군은 23일 무주읍 향로사로 일원에서 "한마음 치매 극복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의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무주읍주민 2백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오후 6시 30분 무주공원(무주읍)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치매 예방 운동을 시작으로 수리재널 사거리를 지나 다시 무주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약 3.8km)를 함께 걸었다. 수리재널 반환 지점에서 행운권을 배부해 종료 지점에서 추첨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후원물품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3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광활면 9남매 다자녀가정을 방문해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 후원 물품(5백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9남매(4남 5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이승현·김미정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농협 김제시지부의 지원 기탁으로 추진됐다. 조원석 농협 김제시지부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관해 관심 갖는 계기가 되었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슬기롭게 잘 자라하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후원을 받은 부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이 의미 있는 선물이 되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 한복과 비빔밥 체험, 너무 좋았어요”**

**전북국제협력진흥원, OECD 국가 공무원들에 전통 예절·전통한복·비빔밥 체험 기회 제공**

OECD 국가 소속 연금기관 공무원들이 전주 청음전통문화원에 방문해 전통 예절 수업을 듣고 전통한복과 비빔밥을 직접 체험하였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와 협업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전통한복과 비빔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OECD 국가 공무원들은 전통한복을 직접 착용해 전통한복의 매력을 몸소 체험하였으며, 한복 입는 법, 인사법, 배례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통 예절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인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먹어볼 뿐만 아니라, 비빔밥의 유래와 재료별 의미 및 효능에 대한 교육으로 비빔밥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제르바이잔 출신 살레 샤키르 발리예브(Saleh Shakir Vallyev, 26) 공무원은 "K-드라합에서 보았던 한복과 비빔밥을 전주에 와서 직접 체험해보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특히, 한국 전통 예절 교육은 매우 색달랐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와 3년 연속 협업체험 OECD 국가 소속 연금기관 공무원들에게 전북과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O만호기자



**남원시, 현충일 맞아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

남원시는 오는 6월 6일 제89주년 현충일을 맞이해 지리산 국립공원에 시설된 충혼탑 및 전적비 등 기념비와 주변 부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정비에는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5월 말까지 충혼탑 및 전적비 세척, 바닥 이끼 제거, 제초 작업, 계단 보수 등을 진행, 현충일 추념 행사에 참여하는 유족과 추모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건한 추념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리산 충혼탑은 6.25전쟁 중 지리산에서 목숨을 잃은 7,288명의 호국 영령을 기념하는 곳으로, 처음 1969년 5월 광한루원에 세웠으나 1987년 6월 지리산에서 전사한 호국 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후대에 널리 계승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사 현장인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나라 사랑하는 정신과 위훈을 가리는 뜻깊은 6월이 되도록 호국보훈 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민축구단, 리그 5연승 도전... 26일 중랑축구단과 홈경기**

전주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이 리그 5연승에 나선다. 23일 전주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2시 전주대운동장에서 '2024 K4리그' 9라운드 서울중앙 축구단과 홈경기를 갖는다. 앞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전주는 평택시FC를 3대 2로 누르고 리그 4연승을 달리고 있다. 현재 승점 15점(4승 3무 1패)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전주는 이날 승리로 리그 5연승과 함께 상위권에 안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전술을 통한 공격 축구로 8경기서 18골을 넣으며 K4리그 최다득점 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홈경기에서도 전주는 공격축구로 재미있는 축구를

신보이며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공격에서 김도형과 박배근이 상대 골문을 향해 막강 화력을 선보인다. 또 중원에서는 양태열과 신원호, 최시은, 심요셉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공격에 활력을 넣을 전망이다. 수비에서는 여재욱과 이현왕, 박광윤, 임준영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골문은 김재환이 무실점에 도전한다. 양영철 전주시민축구단 감독은 "선두권 유지를 위해 이날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면서 "홈경기인 만큼 막강화력으로 팬들께 재미와 즐거움을 모두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성 기자



**남원시 죽향동, 마을 돌봄단 워크숍**

남원시 죽향동이 마을 돌봄단 구성과 역할 찾기를 모색하고 공동체 내 돌봄을 통해 어울려 사는 죽향동을 만들기 위해 마을 돌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복지라는 주제로 주민자치 돌봄을 통해 복지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한 것이다. 워크숍은 남원시회복지관 김민지 강사의 마을 돌봄단 역할 강화 교육과 맞춤형 복지팀의 민관협력/마을 돌봄단의 역할 교육 및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에 마을 등대의 역할을 당부하며 위축장 수여와 디딤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민지 강사는 단 하나의 연결된 관계도 없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 아들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사례를 소개했다. 발제에 나선 맞춤형복지팀 관계자는 죽향동 인구 1,741가구(3,034명) 중 1인 가구는 967명으로 55%, 65세 이상은 1,000명(33%) 등 지역 특성을 설명하고,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와 전달체계 개편, 통합돌봄 정책 등에도 주민 필요 미충족과 사회적 고립 가구 증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민공·질병·고립 등 고독사 위험군이 높다고 밝히며 마을 중심 사당 중심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복지를 제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지구 환경 보호 캠페인**

익산시는 23일 익산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중앙체육공원에서 지구 환경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40개소 어린이집으로 구성된 익산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생태환경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행사에는 700여 명의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 교직원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지구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지구가 됐다. 참가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구 생태와 환경 지키기의 중요성을 알렸다. 아이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지구 사랑을 널리 알리고, 각 가정에서 모아 온 커피 찌꺼기로 '씨드밤'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씨드밤은 커피 찌꺼기, 흙, 씨앗을 섞어 만든 씨앗 폭탄을 말한다. 땅에 던져놓기만 해도 짝이 나 영유아들도 쉽게 활동에 참여해 방치된 땅을 아름다운 식물들로 가



꿀 수 있다. 김지연 익산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환경 보호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제일고 미용과, 국제미용대회 입상 쾌거**

남원제일고 미용과 학생들이 최근 열린 아시아아티스트 미미페스티벌 국제미용대회에서 13명의 학생이 모두 개인전으로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 장려상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미용인들과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미용인들이 참여해 그들의 실력을 겨루는 자리로, 2,500여명이 경연하는 높은 경쟁률이며, 특히 본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인부의 구분이 없이 함께 경쟁하는 대회라 수상의 의미가 매우 큼이다. 헤어스타일링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최석재(19) 학생은 "열심히 연습한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용인으로서의 꿈을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담당 교사는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좋은 성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4년 '순창 전통주 제조 과정' 수료식 가져**

순창군 출연기관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은 23일 초현당에서 관계자와 교육생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 전통주 제조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전통주 제조 과정'은 전통 발효식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발효식품의 명맥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창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2일에 개강하여 전통주 제조이론 및 실습, 결과물의 전문가 시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교육을 수료한 A씨는 "막연히 어렵게 느껴지던 전통주 제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기분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직접 제조한 전통주를 함께 나누며 선조들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군, 제16회 용담호 환경대학 수료식 개최**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이하 용담호 주민협의회)는 23일 군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임원 및 환경대학 졸업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용담호 환경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2009년 처음 시작하여 진안군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올해로 어느덧 16회를 맞이한 용담호 환경대학은 지난 4월 18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으며 올해는 33명의 환경대리기가 배출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여러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용담호 물 관리, 기후변화, 군의 역사 등 전문적 강의는 물론 노래교실 및 친환경 비누 만들기 체험도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수강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용담호 주민협의회장은 "이번 6주간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용담호 수질을 지키기 위한 수질개선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용담호 맑은 물 지키기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유태만 기자